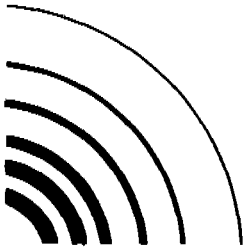


80年代의 韓國經濟와 中小企業 (上)



柳 騎 榮

企協, 中小企業新聞編輯局長

— 1 —

80年代의 經濟와 그 環境속에서 固有의 經濟的 機能과 經濟社會的 役割을 수행할 中小企業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70年代의 우리 經濟가 밝아온 길과 中小企業이 걸어온 70年代의 자취를 간단히나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70年代의 韓國經濟가 輸出을 지렛대로 하는 高度成長을 追求하는 政策으로 一貫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이 政策에 대한 功過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필히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은 그 固有 機能이 輸出産業이 아닌 中小企業이 이같은 輸出中心의 高度成長 環境속에서 어떠한 位置와 어떠한 立地에서 存在해 왔느냐가 어제와 來日을 이어가는 오늘의 中小企業의 課題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70年代 우리 經濟가 高度成長을 遂行했음은 分명한 사실이다. 많은 試行的 錯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누구나가 是認하고 있다. 이 高度成長 政策은 1百億弗의 輸出日標를 3年이나 앞당겨 달성했고 國民所得의 1次的 日標인 千弗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같은 高度成長이 우리에게 反省을 주는 것은 우리 經濟가 內實化되지 않는 外型的인 것으로만 膨脹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物量主義와 規模主義

의 擴大爲主의 成長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바라는 高度成長의 概念은 産業構造나 生産組織이 高密度로 짜여진 內實化를 土台로한 質·量의 複合的 成長이다. 따라서 外型的 擴大나 膨脹이 質일 수 없고 實일 수는 없는 것이다.

設定된 日標는 하나의 可能性을 內包하는 計劃이며 政策意志의 表現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세워진 經濟的 日標는 그것이 곧 政策 日標로 삼아졌고 그 日標 達成이 곧 政策的 달성이 되었다. 따라서 輸出드라이브와 擴大開發 中心의 日標達成이 追求됨으로써 急進成長을 가져왔고 均衡을 잃은 投融資는 그 效果比率이 높은 大企業 輸出部門에의 一邊到 遍重特惠支援을 몰고와서 結果的으로 심한 産業間的 不均衡과 年40%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의 惡循環을 가져왔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高度成長을 위한 不可避한 政策이었다 할지라도 中小企業의 立場에서는 不滿이 아닐 수 없었고 憲法에서 國家가 保護하고 育成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中小企業 育成 施策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策은 疎外되었고 古典的이고 姑息的인 社會政策의 側面에서의 育成이 못되는 保護爲主에서 脫皮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大企業은 자고나면 肥大해 지고 한해 두해 만에 財閥企業들이 생겨나는 가운데에도 中小企業은 이들의 侍女처럼 짓눌려 신음하면서 質量兩面에서 中小企業 나름대로의 그들과 對等한 位置로 올라서야 할 固有의 機能과 固有의 役割을 가져야 할 機會를 얻지 못했고 마땅히 가져야 할 位置를 가지지 못한채 傷處투성이 發育未達 肢体不自由兒가 되어 닥아오는 80年代 經濟與件은 中小企業에 대해 當然히 要求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中小企業이 高度産業 構造에서 수행해야 할 固有의 經濟的 機能과 固有의 社會的 役割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中小企業은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中小企業은 70年代의 跛行的 經濟構造에서 이어받은 많은 問題들을 그대로 안고 80年代가 요구하는 甚한 課題에 直面하고 있다. 70年代에는 高速成長 過程 속에서 그런대로 中小企業의 問題들을 迂廻할 수 있었으나 80年代가 提示하는 經濟建築의 靑寫眞은 中小企業이 가지는 固有의 機能과 役割을 100% 必要로 하는 마지막 카드이며 回避할 수 없는 「애로카드」이다. 80年代의 中小企業은 이 「애로카드」를 拒否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中小企業은 80年代 經濟그라운드에서 退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0年代의 經濟與件과 그것이 造出하는 經濟環境은 中小企業에 대해 이처럼 심각하고 苛酷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經濟의 發展 段階가 願하든 願하지 않던 産業福祉 社會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靜止케 한다는 것은 곧 沈滯를 뜻하는 것이며 後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經濟建設에 致命的인 損傷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오늘의 中小企業 問題는 中小企業 自体의 死活問題이기 以前에 産業福祉 社會建設을 指向하는 80年代 韓國經濟 전체의 결정적인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80年代의 經濟運用과 그것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經濟環境은 어떠한 狀況이 될 것인가?

中小企業의 오늘의 課題는 여기 對處하는 問題일 것이다.

80年代의 經濟運用은 70年代의 高度成長 追求를 위한 官主導에서 벗어나 民主導型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國民 스스로가 創意力과 自主的 努力과 自主的 意思決定으로 스스로가 責任을 져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政府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으며 아직 確定지워지고 있지는 않으나 제 5차 計劃案에서 그것이 反映되고 있다. 民間主導型은 勿論 一朝一夕에 急轉換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나 500億佛 輸出을 目標삼고 있는 80年代 中盤期까지는 民間主導型 經濟體制가 어느 정도 進展될 展望으로 보인다.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란 經濟原理와 機會均等を 바탕으로 한 市場競爭 原理에 立脚함을 말한다. 따라서 公正한 競爭環境이 造成되고 모든 去來秩序가 自律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民間主導型 經濟運營은 開放的이고 自律的이며 自主的 精神이 追求됨으로써 지난날의 官主導型과 같이 官에 依해 市場이 護衛됨을 풀고 政府의 지나친 支援이 排除되어 民間의 創意性이 發揮되도록 經濟與件과 環境이 助長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經濟主体가 同等한 조건 밑에서 公平하게 경쟁하는 産業體質이다. 때문에 銀行도 民營化에 의한 自律的 運營으로 金融의 大衆化가 요구되고 開放體制에 의한 海外競爭도 導入되어 점차 國際化가 追求된다. 한편 政府의 機能의 役割은 高度産業體質에 맞추어 再定立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80年代의 우리 經濟는 各部門이 커다란 機械의 齒車처럼 서로 서로가 체대로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産業도 홀

로서 成長할 수는 없으며 또 어느 部門도 海外 要因과 斷絶된 運營이 있을 수는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80年代의 우리 經濟는 어떠한 樣相이 豫想되는가? 좀 더 具體的으로 豫想해 보자.

첫째 需要面에서 커다란 變化가 올 것이다. 國民의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消費構造나 消費性向이 달라질 것이다. 70年代의 高度成長時代와 같은 衝動購買가 아닌 選好購買가 될 것이다. 그것은 곧 高級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同時에 需要가 多樣化 될 것이다. 國民들은 가지지 못했던 需要를 70年代에 集中購買, 衝動購買에서 벗어나 嗜好에 따른 選擇購買로 性向變化할 것이다.

둘째로는 定額收入 階層의 賃金·厚生福祉에 대한 要求가 증대될 것이 豫想된다. 특히 賃金水準은 높아지고 企業은 이의 壓力을 받게될 것이 거의 分明하다. 따라서 企業은 高附加價值 生産과 生産性 向上이 追求된다.

셋째로는 貿易環境의 變化이다. 國際化로 인한 開放體制로 진정될 것이며 輸入自由화가 擴大될 것이고 資本의 自由化에 수반하여 外國企業과의 競爭이 幅을 넓힐 것이다. 한편 貿易이 擴大되어 80年代 中盤期の 輸出目標가 500億弗이 될 것이고 輸入도 500億弗 線으로 擴大될 것이다.

넷째로는 에너지와 原資材 價格의 上昇이 不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이들 資源供給이 不安定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資源 原資材類는 輸入依存도가 높고 各國이 모두 資源確保에 크게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公害防止 對策이 強化될 것이 確實하다. 公害環境의 保全是 國民의 保健保全과 自然保護에 切實한 問題이며 福祉社會 建設의 側面에서 절대적인 條件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負擔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모든 企業은 信用도를 높이고 過當競爭에 대한 回避策이 필요하며 納稅風土도 先進國型으로 改善될 것이다. 企業會計와 家計가 分

離되고 주먹九九式 經營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한편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企業 倫理도 한층 強調될 것이며 또한 높아질 것이다.

— 3 —

80年代가 요구하는 中小企業의 機能과 役割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를 두개의 側面에서 다루어 볼 수 있다. 政府의 政策面과 業界의 80年代 經濟與件을 受容하는 自体實力의 強化面이다.

政策面에서는 70年代까지의 社會政策的 側面에서의 保護主義에서 脫皮하고 經濟政策的 次元으로 急速히 轉換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77年 100億弗 輸出目標를 앞당겨 達成하고 이를 계기로 輸出의 商品構造를 重化學工業 製品으로 전환하면서 中小企業의 役割에 눈을 뜨고 중소기업의 劃期的인 育成策을 수립하여 이의 推進에 착수한바 있으나 10. 26事態로 크게 進展을 보기도 전에 좌절되고 말았다. 中小企業에 대한 重點育成 문제는 최근들어 다시 高調되고 있음은 늦기는 하나 多幸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立案을 끝내고 審議段階에 있는 제5차計劃에서 中小企業 部門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도 別途로 상공부가 중소기업 振興을 위한 10개年 長期育成計劃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은 80年代 우리 經濟가 要求하는 中小企業 育成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10개年 計劃은 아직 試案이 안되고 있는 段階이고 5次計劃中の 중소기업 부문은 試案에 接한 바 있어 大體 內容을 알 수 있으나 確定段階에서는 修正補完 등 再檢討되어야 部門이 있는 것 같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정부의 80年代 經濟運營의 基本主軸을 重化學工業 中心體制를 그대로 堅持할 方針인 것 같다. 그렇다면 中小企業의 뒷받침 없는 重化學工業이나 重化學을 中心으로 한 輸出의 지속적 증대란 한낱 그림일 수 밖에 없다고 볼 때 中小企業의 育成問題는 時急을 要하는 것이며 支援面에서도 集中化가 不可避하다. 적어도 70年代의 重化學 大企業에 대한 支

援比重을 거의 그대로 中小企業 育成部門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오늘의 中小企業이 當面한 核心的인 課題는 序頭에서 包括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 80年代가 요구하는 새로운 經濟與件에 대한 中小企業의 受容問題이다. 더우기 정부가 앞으로의 經濟運用 基本計劃을 民間主導型으로 轉換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 한번은 치루어야 할 우리 經濟의 試鍊이기는하나 오늘의 中小企業 體質로서는 벽찬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겹쳐서 前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國內外 경제여건의 變化에 對處하는 中小企業은 經營을 비롯하여 技術 등 모든 分野에서 一大革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80年代의 우리 經濟는 앞으로 많은 “핏치”불을 던질 것이다. 이 “핏치”불에 個個의 中小企業은 適時打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固有의 機能과 役割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中小企業은 이 “핏치”불을 재빨리 그리고 정확히 받아내는 受容力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企業家の 經營者로서 時代에 適應할 수 있는 意識改革이 필요하고 企業의 基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壓縮하면 市場競爭産業으로의 體質을 갖추고 個個 企業이 그가 가지는 固有的 機能과 固有的 經濟社會 役割을 定立하여 제 位置를 確固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指摘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오늘의 中小企業의 課題가 모두 中小企業에 대해 試鍊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中小企業이 깨닫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은 이들 課題가 同時에 中小企業의 새로운 發展 段階가 되고 새로운 成長의 좋은 契機와 機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이다. 이 點에 깊은 認識이 要請된다.

중소기업은 지난 20年 가까이 나름대로의 정부의 갖가지 保護施策의 溫室에서 자라난 體質이 없지 않다. 이 溫室의 體質에서 脫皮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依他心을 재빨리 청산하는 企業이 先頭走者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여기서 指摘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無條件 政府에 대한 依他心에서 脫皮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中小企業 育成施策은 70年代의 그것과 달리 보다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立場에서 重點化되고 集中化될 것이 豫想된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中小企業이 經濟 全體的 배런스에 接近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이를 때까지 集中的 支援이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豫想되는 앞으로의 支援施策의 內容을 그때그때 올바르게 正確히 파악하여 個個 中小企業이 말아야 하고 遂行해야 할 機能과 役割에 맞추어 정부의 支援을 100% 效果의으로 活用하는 術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號에 계속〉

